

지역 매아리



정읍시, 이·통장협의회 연찬회 성료

제9회 정읍시 이·통장협의회 연찬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통장협의회는 최근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23개 읍면동 이·통장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가졌다. 연찬회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들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대민 봉사행정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이날 화합 한마당으로 진행됐다. 개회선언과 함께 시작된 기념식에서는 모범 이통장 대상 시상과 시장 표창, 각급 기관장 표창(감사장)을 비롯해 이통장 협의회장의 감사패 수여, 축사 등이 진행됐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탁발 안보 감사인 이소연씨가 '여군상사가 전하는 북한의 실제'라는 주제의 특강도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이날 김성기 시장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이·통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김장 쓰레기 특별수거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정읍시가 김장 쓰레기 특별수거에 나선다. 관련해 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김장 쓰레기를 무료로 수거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가정은 물론 음식점의 김장 관련 채소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투명봉투 배출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소금에 절이지 않은 채소류는 속이 보이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단, 소금에 절인 배추류와 양념류 등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시는 "김장 쓰레기를 무상수거 하는 대신 절이지 않은 채소류 배출 시 불투명 비닐봉투를 사용하거나 투명 비닐봉투에 절임을 배추나 일반생활 쓰레기를 섞어서 배출하면 무단투기로 간주 거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상호협력 통한 공동발전 도모

## 부안군-중국 흥호시,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우호교류 협약 체결

부안군(군수 김종규)과 중국 호북성 흥호시(시장 심선무)는 협력강화 및 민간교류 확대 등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도모하려고 지난 8일 중국 흥호시에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중국 호북성 흥호시의 초청을 받은 김종규 부안군수와 오세웅 부안 군의회 의장 등 부안군 대표단 8명과 장원매 당시기와 심선무 흥호시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행정·경제·문화·교육·관광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 추진, 청소년들의 해외연수 및 문화체험 등 문화교류,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 공유,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농특산물 교류 등을 통해 양도시간 경제적 이익을 도모키로 했다.

부안군 대표단은 이번 협약 체결과 함께 5일 간 현지에서 머물면서 민간 투자 및 기업유치,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했다.

중국 흥호시는 형주시의 현급시로 장강(양쯔강)의 중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흥호'라는 호수의 이름을 따 흥호시로 불리고 '물의 고향'이라는 별칭이 있는 도시이다.



지난 8일 중국 흥호시에서 부안군(군수 김종규)과 중국 호북성 흥호시(시장 심선무)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흥호시는 하천과 호수 운하가 조밀하게 연계돼 수면면적이 30%를 차지해 국가급 습지자연보호구역과 우림역사명승경구, 유람선 연꽃 등 관광자원이 풍부해 지난해 478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매년 20% 이상 관광객 증가를 하는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안군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발전잠재력이 우수한 중국 흥호시와의 우호교류 협약 체결로 양도시간

지역발전의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이번 우호교류 협약 체결이 흥호시와 부안군 상생발전의 발화점이 돼 두 도시의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행정·경제·문화·관광·교육 등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 글로벌 시대에 동반성장이라는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 취약계층 정신건강 연계 서비스 구축 '결실'

## 정읍시보건소, 정신보건사업 발전대회서 우수기관 선정 '3관왕' 영예

정읍시보건소가 2017년 전북도 정신보건사업 발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보건소에 따르면 9일 전북도대 정신건강복지사업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으로 고창에서 열린 대회에서 결실을 거뒀다.

보건소는 이날 우수기관 선정 외에도 관련 공무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가 표창을 받아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관련해 시 보건소는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 상담·치료·재활·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에 주력해 왔다.

더불어 정신건강보건의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생애주기별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정신

질환자들의 재활, 그리고 사회복지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관련 기관 2개 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

이들 협약기관은 이동 상담과 우울증 조기 정신증 검사, 정신건강증진 교육, 우울과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 지역 아동센터 7개소를 선정해 이동 이동 대상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또 구직자와 지역자활센터 이용자, 산후 우울 대상자, 교도소 재소자, 소방·교정 공무원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과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우울증과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의 노인정신건강사업인 '형형색색 행복마을'도 돌보았다.

지역 내 3개 마을을 선정하여 정신건강마을로 지정해 협약을 맺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 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 실시 등 다방면에 걸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특히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 고창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접수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촉진해 나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올해 178등을 선정해 약 70% 정도가 공사 착수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며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되며, 급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가능하다. 다만,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

일 경우에만 용지자원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군은 오는 2018년 8월말까지 대출기한을 감안 향후 사업 포기자 발생을 대비해 예비대상자를 수시로 모집하며,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주민 등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예비대상자로 선정된다.

사업 신청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주민이나, 무주택자, 귀농·귀촌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포기자 발생 시 접수순서에 따라 대상자로 확정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063-560-2395)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 고창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 박차

고창군이 선진 상수도 행정실현과 신뢰도 높은 검침행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올 3월부터 14개 읍·면 순차적으로 기계식 계량기를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이길수 부군수는 고창군 전체 급수전 2만4000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현장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추진을 당부하는 등 소용 현정행정을 펼치고 있다.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계량기 교체가 87% 진행됐으며, 올 11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내년

부터는 고창군 전 지역에 원격검침을 시행하게 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검침원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검침을 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 날씨에 구애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과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로 검침 신뢰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민 서비스 연계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길수 부군수는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주민 불편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고창군 '아산면·공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정

고창군이 면 소재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아산면, 공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점점 약해져가는 배후마을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동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수요 요구 충족 및 고령·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농촌 공동체 회복과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귀농귀촌인의 유입으로 인한 인구증대를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면과 공음면에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0억이 투입돼 아산면에 희망센터 조성, 행복채움터 리모델링, 배수시설 개선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공음면에는 어울림센터 및 망당조성, 보행자안전도 등 조성, 작은목욕탕 리모델링, 쉼터 조성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 공감대 형성과 주민의식 개발을 위한 지역역량강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박우정 군수는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이끌어내 나후된 면 소재지에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비롯해 경관을 개선해 활력 넘치는 농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번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매가 익어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h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